

‘평화연극제’ 못다한 오월 이야기가 시작된다

광주연극협회가 주최하는 ‘광주 평화연극제’는 광주에서 진행되는 유일한 문화 이벤트 가운데 자기 색깔이 가장 뚜렷한 행사 중 하나다.

특히 5·18이라는 동일한 주제와 동일한 무대를 제공받은 ‘연출가들’의 역량이 발휘된 지난해 행사는 인상적이었다. 연출가들이 마음대로, 사실주의 연극으로, 퍼포먼스로 각기 풀어낸 6편의 오월 이야기는 다양한 감정의 파장을 안겼다.

4일부터 15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리는 ‘2012 광주평화연극제’는 ‘극작가’에 방점을 찍었다. ‘5·18 무대에서 길을 물었다!’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극제에서는 공모를 거쳐 뽑힌 5편의 창작 희곡이 공연된다.

타 지역 작가들과 극단의 작품이 많아 광주 내부가 아닌, ‘외부자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오월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13일 공연되는 극단 민예의 ‘연꽃 속의 불’은 김나정의 작품이다. 작가는 무언가 훗날같은 걸 안고 사는 50대 여자의 치료를 받은 상담심리사의 고군분투 과정을 통해 5월의 상처를 더듬어 간다.

같은날 무대에 오르는 목포 출신 작가 정경진의 ‘어머니의 바다’는 드라마 스튜디오(연출 윤희철)가 공연한다. 정씨는 차범석 희곡상 수상작으로 지난해 대한민국의극상 작품상 등을 받은 5월 연극 ‘푸르른 날에’의 작가다.

‘어머니의 바다’는 5월 항쟁 때 남동생을 잃은 영순이 어머니로부터 수의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비운의 가족사를 되새기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15일에는 세 편의 작품이 공연된다. ‘의자는 잘못없다’ 등의 희곡을 쓴 광주 출신 작가 선옥현은 ‘벽, 폐허... 그리고 성(城)’(극단 필통)을 선보인다. 작가는 ‘광주 이야기를 멜로 드라마 형식으로 풀어보고 싶었다’고 말했고, 사랑을 구하는 한 청년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돌아온 김거물’(극단 결판)은 지난해 서울신문과 부산일보 신춘문예 희곡상을 수상한 오세혁 작가가 연출까지 맡은 작품이다. ‘국가에 위한 일’만을 하겠다고 결심한 조폭

이었다. 광주 극단 ‘열·아리’의 ‘희상 5월’(양태훈 작 양정인 연출)은 2012년 도청에 모인 시민군들이 이야기하는 5월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광주에서 접하기 어려운 ‘남독공연’도 선보인다. 무대에서 희곡을 직접 읽는 남독공연은 온전한 연극작품을 보는 것과는 또 다른 매력을 준다.

11일 남독 공연 ‘내 이름은 강’(극단 청우)을 준비한 고연옥 작가와 연출까지 맡은 작품이다. ‘국가에 대한 무덤’ 등 화제작을 잇따라

내놓은 콧바다. 사회를 향한 발언들을 놓치지 않는 두 사람이 선보이는 ‘내 이름은 강’은 자연이 보내는 끔찍한 경고를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또 다른 남독작품은 최영화 광주연극협회가 호남대 학생들을 데리고 작업한 ‘물의 편지’다. 이노우에 히사시 작품으로 ‘우리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물’이 보내는 편지를 통해 환경 문제를 이야기한다.

일본 극단 초청작은 9일 관객들을 만난다. 일본 문화화가 무대에 올리는 ‘빛나무 위 빛나무 아래’는 학교를 배경으로 현대와 태평양 전쟁 당시를 오가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문의 062-523-7292.

3일과 15일 공연 막간에는 김길수(순천대)교수와 백현미(전남대)교수가 뒤풀이 담론을 진행한다. 연출가, 배우와 함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다.

지난해 공연했던 작품 중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친 두편의 작품을 다시 보는 즐거움도 있다. 4일 관객을 만나는 극단 노들의 ‘오후 5시’는 지난해 연극제에서 가장 인상적인 작

품이었다. 광주 극단 ‘열·아리’의 ‘희상 5월’(양태훈 작 양정인 연출)은 2012년 도청에 모인 시민군들이 이야기하는 5월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광주에서 접하기 어려운 ‘남독공연’도 선보인다. 무대에서 희곡을 직접 읽는 남독공연은 온전한 연극작품을 보는 것과는 또 다른 매력을 준다.

11일 남독 공연 ‘내 이름은 강’(극단 청우)을 준비한 고연옥 작가와 연출까지 맡은 작품이다. ‘국가에 대한 무덤’ 등 화제작을 잇따라

내놓은 콧바다. 사회를 향한 발언들을 놓치지 않는 두 사람이 선보이는 ‘내 이름은 강’은 자연이 보내는 끔찍한 경고를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또 다른 남독작품은 최영화 광주연극협회가 호남대 학생들을 데리고 작업한 ‘물의 편지’다. 이노우에 히사시 작품으로 ‘우리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물’이 보내는 편지를 통해 환경 문제를 이야기한다.

일본 극단 초청작은 9일 관객들을 만난다. 일본 문화화가 무대에 올리는 ‘빛나무 위 빛나무 아래’는 학교를 배경으로 현대와 태평양 전쟁 당시를 오가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문의 062-523-7292.

3일과 15일 공연 막간에는 김길수(순천대)교수와 백현미(전남대)교수가 뒤풀이 담론을 진행한다. 연출가, 배우와 함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다.

지난해 공연했던 작품 중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친 두편의 작품을 다시 보는 즐거움도 있다. 4일 관객을 만나는 극단 노들의 ‘오후 5시’는 지난해 연극제에서 가장 인상적인 작

품이었다. 광주 극단 ‘열·아리’의 ‘희상 5월’(양태훈 작 양정인 연출)은 2012년 도청에 모인 시민군들이 이야기하는 5월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광주에서 접하기 어려운 ‘남독공연’도 선보인다. 무대에서 희곡을 직접 읽는 남독공연은 온전한 연극작품을 보는 것과는 또 다른 매력을 준다.

11일 남독 공연 ‘내 이름은 강’(극단 청우)을 준비한 고연옥 작가와 연출까지 맡은 작품이다. ‘국가에 대한 무덤’ 등 화제작을 잇따라

내놓은 콧바다. 사회를 향한 발언들을 놓치지 않는 두 사람이 선보이는 ‘내 이름은 강’은 자연이 보내는 끔찍한 경고를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또 다른 남독작품은 최영화 광주연극협회가 호남대 학생들을 데리고 작업한 ‘물의 편지’다. 이노우에 히사시 작품으로 ‘우리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물’이 보내는 편지를 통해 환경 문제를 이야기한다.

일본 극단 초청작은 9일 관객들을 만난다. 일본 문화화가 무대에 올리는 ‘빛나무 위 빛나무 아래’는 학교를 배경으로 현대와 태평양 전쟁 당시를 오가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문의 062-523-7292.

3일과 15일 공연 막간에는 김길수(순천대)교수와 백현미(전남대)교수가 뒤풀이 담론을 진행한다. 연출가, 배우와 함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다.

지난해 공연했던 작품 중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친 두편의 작품을 다시 보는 즐거움도 있다. 4일 관객을 만나는 극단 노들의 ‘오후 5시’는 지난해 연극제에서 가장 인상적인 작

품이었다. 광주 극단 ‘열·아리’의 ‘희상 5월’(양태훈 작 양정인 연출)은 2012년 도청에 모인 시민군들이 이야기하는 5월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광주에서 접하기 어려운 ‘남독공연’도 선보인다. 무대에서 희곡을 직접 읽는 남독공연은 온전한 연극작품을 보는 것과는 또 다른 매력을 준다.

11일 남독 공연 ‘내 이름은 강’(극단 청우)을 준비한 고연옥 작가와 연출까지 맡은 작품이다. ‘국가에 대한 무덤’ 등 화제작을 잇따라

내놓은 콧바다. 사회를 향한 발언들을 놓치지 않는 두 사람이 선보이는 ‘내 이름은 강’은 자연이 보내는 끔찍한 경고를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또 다른 남독작품은 최영화 광주연극협회가 호남대 학생들을 데리고 작업한 ‘물의 편지’다. 이노우에 히사시 작품으로 ‘우리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물’이 보내는 편지를 통해 환경 문제를 이야기한다.

일본 극단 초청작은 9일 관객들을 만난다. 일본 문화화가 무대에 올리는 ‘빛나무 위 빛나무 아래’는 학교를 배경으로 현대와 태평양 전쟁 당시를 오가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문의 062-523-7292.

3일과 15일 공연 막간에는 김길수(순천대)교수와 백현미(전남대)교수가 뒤풀이 담론을 진행한다. 연출가, 배우와 함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다.



극단 노들의 ‘오후 5시’

■ 행사주요일정

공연일	극단명	작품명
5월 4일(금)	극단 노들	오후 다섯시
5월 6일(일)	극단 열·아리	희상 5월
5월 9일(수)	일본문화화	빛나무 위 빛나무 아래
5월 11일(금)	남독공연	물의 편지, 내 이름은 강
5월 13일(일)	극단 민예	연꽃 속의 불
5월 15일(화)	극단 드라마 스튜디오	어머니의 바다
	극단 필통	벽, 폐허 그리고 성(城)
	극단 결판	돌아온 김거물
	극단 √21	테러리스트

화폭 가득 피어난 화려한 맨드라미

박동신 개인전, 6일까지 갤러리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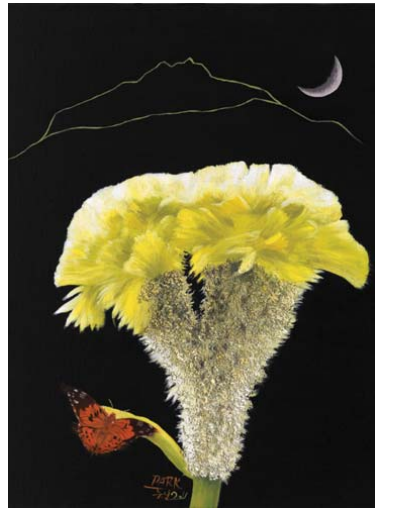
‘맨드라미’가 이렇게 화려했을까. 영암 고향 집 앞마당을 가득 채웠던 맨드라미를 20여년 동안 그림으로 옮기고 있는 서양화가 박동신씨가 6일까지 광주시 동구 갤러리D에서 개인전을 연다.

작품에서 맨드라미는 그저 꽃 그림이 아닌, 작가의 마음 속 열정을 피워내는 소재로 표현되고 있다.

박씨는 이번 전시에서 ‘열정-맨드라미’라는 주제에 맞춰 탈스러온 맨드라미가 화폭을 가득 채운 작품 40여점을 선보인다.

작품을 들여다보면 꽃줄기의 윗부분 주름진 모양이 수탉의 볏과 같이 계관(鷄冠) 또는 계두(雞頭)라고 불리는 맨드라미가 이렇게 강렬한 원색을 가진 예쁜 꽃이라는 데 탄성이 나온다.

배경을 단색으로 처리하면서 강렬



‘열정의 맨드라미’

한 색감의 맨드라미를 부각시키는가 하면, 치밀하게 묘사한 점도 눈길을 끈다. 문의 062-222-8011.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5·18항쟁 32주년 ‘희망을 춤추다’

고암 이응노 특별전, 23일까지 롯데갤러리

한지에 먹으로 그려진 수심, 수백, 수천의 뾰족한 인간들. 시대의 아픔을 걸머지고 군중이 외치는 자유의 의미를 종이 위에 옮긴 고암 이응노 화백(1904~1989)의 예술혼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게 됐다.

광주 롯데갤러리는 5·18 광주민중항쟁 32주년을 맞아 23일까지 ‘희망을 춤추다-고암 이응노’특별전을 연다. 60년대의 플라주, 70년대의 문자 욕고를 치른 굴곡진 삶을 들여다보는 것도 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문의 062-221-1808.

이번 전시에 선을 보이는 ‘군상’ 시

리즈의 경우 한, 두 사람이 그린 작은 그림들부터 수천의 군상이 뾰족한 그림까지 다양한 작품들로 채워진다. 그가 광주민중항쟁 소식을 듣고 만든 ‘군상’시리즈는 억압속에서도 희망차게 살아가는 인간들을 형상화한 것으로,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며 유럽 화단에서 반핵운동의 메시지로 입일 정도다. 한국전쟁 중 아들의 월북으로 이산 가족이 되고 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굴곡진 삶을 들여다보는 것도 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문의 062-221-1808.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시민들 작년 평균 독서량 10권

‘국민독서실태조사’ 전남 6.4권 전국 최하위

광주 시민들은 지난해 평균 10권의 책을 읽었고 평일 25.3분, 주말 34.9분을 책 읽는 데 쓴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지역의 독서량과 하루 평균 독서 시간은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2011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도서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국내 성인들의 평균 독서량은 9.9권으로, 전년(10.8권)에 비해 한 권 가량 줄었다.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 결과, 성인들의 연평균 독서량은 지난 2007년(12.1권)이후 매년 감소 추세다.

지역별로는 전남 성인의 연평균 독서량이 6.4권으로 머물러 가장 낮았다. 광주는 평균 10.0권의 책을 읽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독서 시간은 성인들의 경우 평일은 25.9분, 주말은 29.9분이었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 전자책 이용률도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한 권 이상의 전자책을 읽었다’고 응답한 성인은 16.5%로, 전년도(11.2%)보다 증가했고 학생들도 2010년(43.5%)보다 늘어난 50.2%로 조사됐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여성재단, 기관협력·친화마을조성 사업 공모

(재)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이윤자)은 2012년 여성단체·기관 협력사업과 여성친화마을조성지원사업을 공모한다.

공동협력사업은 광주여성재단이 지역여성계와 공동성장을 위해 민간과 함께 하는 첫 사업이다. 여성친화마을 조성지원사업은 전국 최초 광역형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걸맞는 지역 특화형 모델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협력사업은 남녀고용평등의식 확산 및 인식개선, 오월여성아카이브

구축 및 콘텐츠 개발, 지역여성역량 강화를 주제로 7~9개 과제를 선정한다.

여성친화마을을 조성지원사업은 ㈜광주신세계의 후원으로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반영해 돌봄·문화·생태·환경·공간·소득 등이 어우러지는 성평등한 마을을 희망하는 마을공동체, 여성단체에 지원한다.

접수 마감은 오는 5월 10일까지다. 문의 062-670-05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군상-people’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1년

www.geumsoojang.com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A코스 40,000원 / B코스 33,000원
C코스 25,000원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외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식

최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Be natural
Be delicious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마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유스퀘어 사우나

24시간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파·마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온원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